

협회動靜

제1차 定期總會가 지난 2월 26일 오후 데이터통신 4층 엘릭스 홀에서 열려 소프트웨어 유통센터 설치 등 올해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李海旭 체신부 차관, 具滋斗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 및 회원사 임직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전산망 기술 및 기자재 표준화, 민간VAN활성화 등 주요사업과 함께 한국통신진흥(주)이 올해부터 유망 기업에 지원하게 될 1천억원의 개발기금 수혜업체 추천 업무가 위탁사업으로 채택됐다.



▲ 협회참립 후 첫 총회에서 소프트웨어 유통센터 설치 등 올해사업을 확정했다.



▲ 축사를 하는 李海旭 체신부차관



▲ 총회를 진행하는 具滋斗 회장

정기총회에 앞서 제2회 이사회가 열려 신규회원 가입승인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 제2회 이사회 광경

협회動靜

특별회비 책정

제1차 정기총회는 공중통신사업자 및 임원의 특별회비 납부를 결의했다.

책정된 특별회비는 ▲공중통신사업자(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데이터통신) 각 1억원 ▲회장 1천만원 ▲부회장 각 5백만원 ▲이사 및 감사 각 1백만원이다.

연구개발·시설자금

실태조사

협회는 정보·통신관련 4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연구개발 및 시설자금 소요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5일부터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계획 외에 ▲각종 정책자금 지원실태와 ▲자금지원 희망실태, 그리고 ▲정책자금 이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여론조사도 병행됐다.

협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올해부터 지원될 정보·통신개발기금의 수혜업체 추천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무국 조직 변경

협회 사무국의 조직이 기획부·총무과의 1부1과에서 기획부·사업부·총무과의 2부1과로 개편됐다.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부는 신규사업의 기획 및 조사·홍보출판·교육사업을 맡고 사업부는 회원·국제협력 및 위탁사업을, 그리고 총무과는 경리 및 일반총무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보통신 이용자

실태조사

협회는 이달중 국내 정보통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협회는 한국데이터통신의 전용회선 및 데이콤넷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데이터통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 및 법령개선을 관계당국 및 사업자에 건의할 계획이다.

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협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소속 위원의 전문지식을 사업수행에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는 ▲조사연구위원회 ▲정책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회원사업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정기 모임을 갖고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참여하게 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南正鉉 부회장(조사연구) ▲全相昊 부회장(정책) ▲趙重建 부회장(국제협력) ▲朴炳哲 부회장(회원사업) ▲鄭夢憲 부회장(홍보)이 맡는다.

지역별 협의회는 회원의 본사, 지사 및 사무소와 공장의 소재지 별로 전국 각 시·도 협의회를 구성, 협회 사업에 대한 협력 및 지역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장치 지부조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구성은 ▲서울지역 ▲인천·경기·강원지역 ▲부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충청지역 ▲광주·전라·제주지역으로 되어 있다.

理事 3名 새로 선임

李鍾燦 기린시스템 사장과 南錫祐 콤팩트 사장, 그리고 李鶴善 신영정보통신 사장이 제1차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

한편 李鍾旺 한국정보시스템 사장은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 李鍾燦 이사



▲ 南錫祐 이사



▲ 李鶴善 이사